

鄭澈 文學에 드러난 自然觀 研究

김진욱*

<차례>

- I. 緒論
- II. 修己의 自然에 드러난 美的 資質
 - 1. 觀察과 直觀을 통한 耽美
 - 2. 內的 省察로 의 昇華
- III. 現實 脫出 空間으로서의 自然
 - 1. 現實의 노이로제가 빚어낸 自然
 - 2. 憧憬과 不正의 空間인 星山
- IV. 結論

I. 緒論

정철 文學의 커다란 특징은 형식이든 주제든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있다.¹⁾ 이것은 정철이 그만큼 事物을 바라보는 폭이 넓었고,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정철에게는 자연 역시 이중성을 가진다. 정철은 사대부 일반이 가지는 자연에 대한 인식²⁾ 이외에도, 현실의 超脫이라는 의미의 개성적 自然觀³⁾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조 士大夫들의 문학에 등장하는 자연은 각각의 外形的인 특색과 外在的 요소가 지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더라도, 자연이 玩賞을 위한 그 자체만이 될 수는 없었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을 통하여 修己를 이루었고, 또한 이것이 자연을 媒介로 한 작품의 창작 동기였다. 이처럼 자연은 현실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 속에서도 修己의 방편이었다.

정철 문학에는 이와 같은 사대부 일반의 자연관과 더불어 현실 탈출의 彼岸處로써의 자연관⁴⁾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후자의 자연은 일견 유가 사대부들이 추구하였던 歸去來⁵⁾의 지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 사대부가 추구하였던 귀거래의 자

* 조선대학교

1) 줄고, 『松江鄭澈詩文學研究』, 朝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제8 장 '國文詩歌의 表現美', 제9 장 '國文詩歌의 內的 흐름' 參照.

2) 안복,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朝鮮大 博士學位論文 2000, 155 면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일종의 관념 속의 자연이다. 그래서 산수를 노래한 사대부의 시가는 대개 정적이기보다는 지적이고, 미적이기보다는 교화적이라 하겠다.

3)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92 면 그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세계로 인정하면서도 그 자연과의 친화 몰입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4) 현실의 일탈이라는 의미에서 일견 도교적 세계관의 반영으로 보여지나, 정철의 현실 탈출은 도교적 세계관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정철에 있어서 자연은 무위의 자연으로서 현실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현실의 연장이면서도 유가 사대부들의 일반적 자연관이라 할 수 있는 귀거래의 요체도 아니었던 것이다.

5)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7, 25 ~33 면 李朝 兩班은 歸去來로써 현실을 버렸지만 그 버림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안이하였다. 버리는데서 일어나는 내적갈등이 심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버리는 현실을,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매개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버림은 버림에만 그쳤다.

연과는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작품의 내면에 담겨있는 귀거래의 부정을 읽지 않았거나, 정철의 자연관에 대해 道敎的 色彩가 짙다라는 단편적인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정철 자연의 모든 指向處를 성산의 생활에 대한 추억과 동경으로 귀결시켜버리거나, 印象批評 수준에서 자연미를 잘 수용하였다는 언급 정도이다. 金周坤,⁶⁾ 崔圭穗,⁷⁾ 최상은⁸⁾ 등의 연구에서 정철 문학에 드러난 자연미를 비교적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정철 자연관의 생성과 그 특성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철의 자연관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생성된 것이며, 나아가 철학의 문제이므로 주의 깊게 논의하여야 한다.

정철의 자연관을 고찰하여 이것이 정철 문학에 貫流하고 있는 주요한 특성임을 밝히고자 한다. 정철이 지녔던 자연관은 삶의 연장선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므로, 작가의 삶과 작품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⁹⁾ 이것을 통하여 정철 문학의 주요한 특성인 역동성과 정철 작품 세계에서 항상 중요시되는 이중성의 원인을 糾明하고자 한다.

II. 修己의 自然에 드러난 美的 資質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自然은 道學의 또 다른 표출이었다. 공자가 말하였던 ‘三人行必有我師焉’¹⁰⁾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¹¹⁾의 山水가 自然이다. 자연은 이와 같이 玩賞의 대상이 아니라 學의 방편이자, 修己의 대상이었다. 사대부들은 자연을 통하여 수기를 이루었고, 또한 이것이 자연을 통한 작품의 창작 동기이자, 내적 形象化의 基盤이었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자연을 玩賞하고 노래한 데에는 성리학이라는 그들의 철학적 思惟가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 성리학은 인간 심성의 올바른 도리를 탐구하고 이를 일상의 행동규범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도학이라 한다. 도학은 사악한 기운이 없는 인간의 순수한 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순수한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풍류는 어떤 식으로든 자연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

1. 觀察과 直觀을 통한 耽美

정철에게도 자연은 수기의 방편이었다. 정철 역시 산수, 곧 자연을 樂山樂水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흐르는 물로부터 순리를, 산의 중후함으로부터 덕을 깨우쳤던 것이다. 정철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자연을 玩賞하고, 거기에서 오는 미적 아름다움을 修己의 方便으로 삼았다. 정철은 조선조 성리학을 수기의 本으로 삼고 살았던 만큼, 도학적 자연관으로부터 자유

6) 金周坤,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研究」, 『대구어문논총』 6, 1988.

7) 崔圭穗, 「星山別曲의 作品構造的 特性과 自然觀의 問題」, 『이화어문논집』 12, 1992.

8) 최상은, 「松江歌辭에 있어서의 自然과 現實」, 『모산학보』 4·5, 1993.

9) 이러한 방법론은 일견 역사주의 비평 방법의 수용으로 보이나, 미흡하나마 전기 비평의 수용과 심리주의 비평의 기반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0) 論語, 述而.

11) 論語, 擁也.

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정철의 도학적 자연관이 문학 속에서 드러날 때, 사대부 문학의 일반적 유형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정철이 지닌 예리한 관찰력과 타고난 직관력 덕분이었다. 정철은 타고난 작가였다. 이것이 정철 문학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金成基는 정철이 시가문학에서 커다란 공적을 낼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自然美의 自覺에 있었다고 말하였다.¹²⁾ 정철이 관찰과 직관을 통하여 자연의 외경적 아름다움을 수기의 방편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작품1>

明珠 四萬斛을 년넝피 다바다서
담는듯 되논듯 어드러 보내는다
현스현 물방울론 어위계위 흐는다¹³⁾

<작품2>

쇠나기 한줄기미 년넝피 솟드로개
물무든 흔적은 전혀몰라 보리로다
내막음 더긔트야 덜물줄을 모르고져¹⁴⁾

연잎 위로 내리는 비가 구슬처럼 굴러 떨어지는 모습과 빗방울이 굽어지면서 연잎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잡히듯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철의 작품 중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인식의 반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어진 작품이 많다. 다만 어느 한가한 오후의 일상이 시적 소재와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뛰어난 문학성을 구가하는 것은, 崔台鎬의 지적처럼¹⁵⁾ 작자의 예민하고 섬세한 관찰력과 뛰어난 描寫의 技巧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철의 관찰은 즉흥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시상이 되어 선이 굵은 정철의 시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李丙疇는 정철을 이백에 즐겨 비유하였다. 사실 오늘날 시조 문학의 일인자로 추앙 받고 있는 고산 윤선도의 시조보다, 정철의 시조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노계 박인로의 시조를 정철의 시조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였다.¹⁶⁾ 정철의 예리한 관찰력은 一見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물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심상이 <작품2>의 종장에 와서 ‘내막음 더긔트야 덜물줄을 모르고져’ 하면서 자연과의 일체를 추구하고 있다. 연잎은 더 이상 객관적 대상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정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반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잎은 삶의 깊은 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다. <작품2>에 이르러서는 연잎과 물아일체가 되어 세속의 혼탁함을 뒤집어쓰더라도, 끝내 그 청절함을 유지하겠다는 자기 독백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철 문학에 있어서 자연미의 구현은 觀察과 直觀의 산물이었다. 정철의 예리한 관찰력과 絶妙한 표현력은 「關東別曲」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특히 뛰어난 몇 부분을

12) 金成基, 『남도의 시가』, 역락, 2002, 270~271면 松江의 시가문학에서 자연과 자연미가 빠졌다면 公의 문학은 반쪽의 문학에 그쳤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松江의 시가문학 중에서 본체도 어디까지나 자연미가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自然과 自然美는 松江의 시가문학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일차적 요소인 것이 틀림없다.

13)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61. 作品番號는 『松江歌辭』 星州本의 수록 순서에 따른다

14)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53.

15) 崔台鎬, 앞의 책, 178면

16) 李丙疇, 『松江·孤山文學論』, 二友出版社, 1979, 15면

적시하고자 한다.

<인원>

百嶽川천洞동 겨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 ㄱ툰 무지개 玉옥 ㄱ툰 龍룡의 초리
셋돌며 썸는 소리 十십리 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關東別曲」¹⁷⁾

<인원2>

어와 造化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썬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갯는 듯 白 백岳 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명을 박츠는 듯 北 북極 극을 괴왔는 듯
늡힐시고 望望高高臺터 외로올샤 穴혈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千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關東別曲」¹⁸⁾

정철은 예리한 관찰력과 절묘한 표현력으로 자연을 관조의 대상에서 수기의 방편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關東別曲」의 전 부분에서 자연을 보고 인재를 생각하고, 자연을 보고 옛 사람의 고사를 생각하는 정철이기에 그에게 있어 자연은 도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철은 感恩에 대한 보답으로써 연군의 심회와 經國齊民의 포부를 자연에 依託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철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자연을 완상하고 직관적으로 미적 特質을 추출하여 천부적인 표현력으로 작품화하였다. 金成基는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에 드러난 자연관의 뚜렷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松江의 자연에 대한 시각은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에서 차이가 너무 상거하게 드러난다. 「關東別曲」에서 松江은 자연을 동경하고 보는 객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星山別曲」에서는 자연에 귀의하여 하나로 된 것이다. 「關東別曲」에서의 상황 즉 자연을 보는 눈이 객이었던 시절은 송강이 치인하던 환로의 길을 가던 때다. 「星山別曲」에서 松江의 상황은 세상을 아직 몰랐던 젊은 시절에 보았던 자연이거나, 아니면 탈속한 山翁으로 道場을 찾아서 이 곳에 들었던 만년에 보았던 자연 중의 어느 한쪽일 것이다.¹⁹⁾

金成基의 지적처럼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에 투영된 자연의 심상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연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철이 두 개의 서로 상대적인 자연관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는 극과 극을 달렸던 정철 삶의 이중성에서 원인

17) 鄭澈, 『松江歌辭』上, 「關東別曲」. 본 논문의 원문 인용은 모두 『松江歌辭』星州本 의 표기에 따른다

18) 鄭澈, 『松江歌辭』上, 「關東別曲」.

19) 金成基, 앞의 책, 263면

을 찾을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예리한 관찰과 타고난 직관, 절묘한 표현력으로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페르조나의 자연이며, 하나는 무의식²⁰⁾의 자연이었기에 시상의 차이가 분명한 것이다. 정철에 있어서 「關東別曲」의 자연은 페르조나의 자연이며, 완상을 통한 修己의 대상이다.

2. 內的 省察로의 昇華

정철 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관조의 대상이 되어 자기 省察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다음 두 작품은 특히 그 심상의 갈무리가 뛰어나다.

<작품>

夕석陽양 빗긴날에 江강天던이 혼빛친제
楓풍葉엽 蘆노花화에 우리네는 더기력아
그을히 다디나가되 소식몰라 흐노라²¹⁾

<인용>

흐름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리넬제
危위樓루에 혼자올나 水수晶 정簾 님 거든말이
東동山산의 들구나고 北북極극의 별이되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
『思美人曲』²²⁾

두 작품은 동일한 심상이다. 석양 무렵 강이고, 하늘이고 한 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다. 석양이 주는 쓸쓸함이 단풍이 주는 고즈넉한 심상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이 갈대로 전이되니 외로움이 배가되고 있다. 이때 울면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니 외로운 마음이 절정으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자신의 처지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고 이 심상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가의 心象이 <인용3>에서 확대되고 있다. 현실 속에서는 뜻을 알리고자 하나 방법이不在하다. 어쩔 수 없이 상징적인 달과 별을 통하여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의 무상함을 알고있기에 그러한 자신의 처지가 눈물겹도록 처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悽惋의 시상이 흐르고 있다. 처완이 원망으로 흐르지 않은 수작이다. 두 작품 모두 자연 속의 한 장면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정철의 예리한 눈은 어떠한 대상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심회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관찰과 직관이 그의 문학 세계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정철은 다음의 두 작품에서 각각 길가의 돌부처와 백옥잔을 마주하고서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였다.

20)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페르조나의 상대적 개념인 Soul-image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이하 동일) Soul-image를 영혼이나 아니마로 해석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내면적 자아의 개념으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여기에 대한 비판은 검허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21) 鄭澈, 『松江歌辭』下, 作品番號 77.

22) 鄭澈, 『松江歌辭』上, 「思美人曲」.

<작품4>

길우히 두돌부터 벗고굽고 마조셔서
브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마즐만정
人人間간에 離 나別 별을모르니 그를볼위 ㅎ노라²³⁾

<작품5>

中庭書室堂 白淸玉卮杯를 十拾年년만의 고타보니
몹고 흰비춘 어제론듯 ㅎ디마는
엇더타 사람의모음은 朝조夕석變 변 ㅎ는고²⁴⁾

정철은 돌부처 둘이 나란히 서있는 것을 보고, 비록 벗고 굽고 서 있지만 이별이 없으니 돌부처가 부러워 보인 것이다. 會者定離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돌부처는 굽고서 바람, 비, 눈서리를 다 맞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의 이별의 회한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시상이 되어 애절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해학적인 초장과 애절한 중장이 묘한 對를 이루면서 작품의 긴장성을 획득하고 있다.

정철은 <작품5>에서 백옥으로 만든 술잔을 十年만에 다시 대하고서, 그 빛깔이 변함없음을 보고 세상의 朝變夕改를 한탄하고 있다. 백옥의 無變과 사람의 有變이 對를 이루면서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정철 자신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儒者는 항상 타인의 缺로서, 자신을 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술잔의 무변함을 직시하고, 이것을 수기의 방편으로 삼은 걸작이다. 정철은 <작품4>에서 대상의 형상을, <작품5>에서 대상의 속성을 보고서 이를 수기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연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갈대 위를 나는 기러기, 길가의 돌부처, 백옥잔 등등에서도 항상 내적 성찰을 추구하였던 정철이기에 자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정철 앞에 펼쳐진 자연은 그의 스승이었다. 정철 문학에 있어서 자연은 관조의 대상이자, 수기의 방편이었다.

정철 문학에 드러난 자연미가 도학적 대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철 문학의 많은 작품 속에서 읽혀지는 자연미가 위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페르조나의 자연으로 「美人曲」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將進酒辭」를 감상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로고스적 자아이며, 다른 하나는 파토스적 자아이다. 물론 이 둘은 상호 영향을 끼치며 내적, 외적으로 간섭한다. 또한 우리의 자아는 사회적 가면을 쓰기도 하며, 내재화된 욕구에 휩쓸리기도 한다. 우리가 쓴 사회적 가면은 다시 우리를 규정하고 통제하며, 내면적 자아와의 거리가 클수록 일탈과 갈등의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철 문학의 보다 폭넓은 독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감춰진 자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3)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78.

24)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47.

Ⅲ. 現實 脫出 空間으로서의 自然

정철의 자연관에 대한 논의는 「水月亭記」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정철의 「水月亭記」는 자연의 맑고도 고요한 흥에 젖는 즐거움과 시국을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는 정이 경국제민의 이념과 處士의 興趣의 調和로 昇華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水月亭記」는 페르조나의 강력한 개입으로 창작되어진 글이다. 정철에게 있어서 자연의 이중성은 사대부 일반처럼 士이나 大夫이냐로 구분되는 출처에 따른 양면이 아니다. 자연 인식의 이중성이 페르조나에 기초하는가, 무의식에 기초하는 가라는 인식상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K C I

1. 現實의 노이로제가 빚어낸 自然

정철의 큰 누님은 인종의 귀인이었으며, 작은 누님은 종실인 계림군 璫의 부인이었다. 정철은 누님이 인종의 숙의였던 까닭으로 궁궐출입이 자유로웠고, 연배였던 명종과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친분을 도모할 수 있었다.²⁵⁾ 하지만 을사사화에 정철의 姊夫 계림군 유가 연루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철의 집안은 피화를 입었다. 하루아침에 왕실의 외척에서 역적으로 몰린 것이다. 하늘에서 지옥으로의 떨어짐을 경험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 정철에게 정신적 외상²⁶⁾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노이로제로서 지나친 집착 의식을 그에게 형성시켰으며,²⁷⁾ 그의 정치적 행위나 문학에도 관류하고 있다. 이러한 정철이었기에 그의 문학 속에서 自然은 도피기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曹圭益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송강의 의식을 형성한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내적·외적 상황들이었고, 그의 의식은 세계관이나 인생관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창작의 현장에서 그러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은 문학관으로 직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그가 작품에 드러내고자 한 주제의식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상반되는 두 가지 주제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이 그 하나이고 탈현실에 대한 욕구가 다른 하나였다.²⁸⁾

曹圭益의 지적에서 탈현실에 대한 욕구, 관념상에서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였던 감성 중심의 의식에 대하여 논의를 擴張시켜 보자. 정철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하여 권력의 달콤함과 아울러 상대적 폐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철에게 정쟁에서 敗北하는 것은 개인의 몰락을 넘어서 가문의 被禍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그 참상의 끔찍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실에 발을 내딛는 것은 항상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는 신경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⁹⁾ 그의 정치적 행로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政敵에게 공격적인 모습과 완전히 패배한 정적에게 관용적 모습을 보이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³⁰⁾

정철의 아버지 유침은 아예 그가 현실 속에 발을 내딛는 것 자체를 부정하였다.³¹⁾ 을사사화

25) 공의 자씨가 인묘의 숙의였던 고로 공은 십세 전부터 동궁에 출입하였으며, 명묘가 대군으로 있을 때 항상 거처를 같이하고 장난놀이도하여 정분이 매우 두터웠다. 그래서 공이 급제에 오르매 명묘께서는 방목을 보고 심히 기뻐하여 아 이 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모씨가 급제를 하였어” 하며 술과 안주를 6~7 인으로 지워보내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또 방을 부를 때에는 서문 밖을 경유하여 가게 하시었으니, 이는 성 위에서 친히 보고 싶었던 것이다 公之姊氏爲 仁廟淑儀故公十歲前後出入東宮 明廟爲大君時常同處遊戲情愛甚厚公登第 明廟見 榜目喜甚呼兒名曰某氏及第也即 賜酒饌使六七人負送以助宴需且令放榜時由西門外 而行蓋欲於城上見之也.(『松江別集』卷四, 行錄.)

26)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입문』, 서석연 역, 범우사, 1990, 284~285면 우리가 외상적 체험이라고 명명한 것은 단시간 내에 심적 생활 속의 자극이 고도로 증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잘 처리하고, 혹은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써 에너지의 활동에 지속적인 장애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7) 프로이드, 위의 책, 285면

28) 曹圭益, 『松江 鄭澈의 短歌』, 『古詩歌研究』 제2·3 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36면

29) 정철은 몸이 쇠약하였다. 여러 기록에 보이는 그의 풍모로 보아서는 쇠약한 몸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심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철은 쇠약하였으므로 항상 양생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차례 토굴 생활도 하였다

30) 정적이었던 이발이 복도로 정배되어 가는 도중에 정철의 은혜에 감동을 하는 일화이다.“돌아가거든 계함에게 말하여다오 내가 계함을 저버린 일이 많았는데 계함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른 날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상대하리오” 하며 실성 통곡하였다. 歸語季涵吾之負季涵多矣 季涵不負 吾他日地下何面目相對 失聲痛慟哭(『松江集』卷三, 別集, 年譜)

가 정철에게 끼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자가 학문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조 사대부 가문에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정철은 어린 시절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버지 유침의 뜻이었으며,³²⁾ 정철의 무의식 속에서 항상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던 것이다. 정철에게는 권력 중심의 현실과 현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후자인 자연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자, 또 하나의 다른 현실로써 현실의 부정, 자기부정의 현실이다. 정철에게 이 두 개의 현실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³³⁾ 정철은 이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였으며, 그 갈등이 그의 정치적 행로에서도, 문학에서도 번갈아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은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거나, 아니면 歸去來의 요처였다. 하지만 정철은 이이의 말처럼 ‘때를 만나면 나아가는 것이요, 때를 만나지 못하면 때를 기다리는’³⁴⁾ 歸去來의 요처를 용납할 수 없었다. 정철에게 失期는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는 노이로제였다. 그러므로 정철의 인물평에 강직이라든지, 편협이라든지 하는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³⁵⁾ 정철의 이러한 인물됨은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정철 문학에서 독특한 자연관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 탈출로서의 자연관은 그의 문학 작품 전반에서 보여지나, 「星山別曲」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31) 공의 자부 계림군 유가 정순봉, 허자 등에게 구살되자 만형 정랑공 자는 피체되어 매를 맞고 귀양을 가는 길에서 죽었으며 아버지 관관공 역시 구금되었다가 겨우 죽음만을 면하였다. 부형이 가화를 만난 뒤로부터 교훈에 뜻이 없는 고로 공은 여러 해 동안 배우지 못하였다. 遭家禍 公娣夫桂林君瑠被鄭順朋許磁等構殺 公伯兄正郎公滋被逮杖流道卒 判官公亦囚繫僅脫死 父兄自以禍家無意於教訓 故公屢年失學。(『松江集』卷二, 別集, 年譜.)

32) 공이 일찍이 말씀하되 “을사사화를 만나 가족이 탕진되어 부형이 자제 교육에 뜻을 두지 않으므로 그러저렇하다가 배움이 실기되어 성현의 글을 많이 읽지 못하였고 자라서야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다. 公嘗自言遭乙巳土禍 家族蕩殘父兄無意於教誨因循失學不能多讀聖賢書及長始有志於學云。(『松江集』卷四, 別集, 行錄.)

33) 이것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으므로 정철은 현실 속에서 자연을, 자연 속에서 현실을 끊임없이 동경하였던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작품이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이다.

34) 李珣, 東湖問答, 栗谷集, 卷十五, 雜著二.

35) 줄고, 「鄭澈 研究」, 『人文科學研究』 21집, 朝鮮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99, 91~115면 參照.

2. 憧憬과 不正의 空間인 星山

정철의 「星山別曲」은 다른 가사 작품과는 달리 당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당대의 독자는 작품 안에 존재하는 유가적 자연관과 이질적인 자연관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적 자연관의 이해를 통해서만 「星山別曲」이 격정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인원1>

엇던 디날손이	星山 산의 머물며서
棲서霞하堂 당 息식影영亭亭	主主人인아 내말듯소
人인生生 世世間간의	도흔일 하건마는
엇디 江江강山 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寂寂寞막 山山中중의	들고아니 나시느고

「星山別曲」³⁶⁾

이 부분은 「星山別曲」의 서두로서 대화체를 빌려 정철이 서하당 김성원에게 삶의 태도를 묻고 있는 부분이다. 정철은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많은데, 왜 한 평생을 적막산중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가’라고 묻고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星山別曲」의 기본 구조이다. 여기서 김성원은 정철의 무의식이 동경하는 자아이다.

즉, 「星山別曲」에서 김성원이 머물고 있는 성산이 정철의 무의식이 추구하는 자연인 것이다. 성산은 歸去來의 요처로서 때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정철의 페르조나는 인간 세상의 좋은 일을 추구하고 성산을 적막산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철의 무의식은 성산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페르조나와 무의식의 충돌이 작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원2>

天筵邊변의 簾帘구름	瑞瑞石石을 집을사마
나는듯 드는양이	主主人인과 엇더흔고
滄창溪계 흰물결이	亭 亭子 즈알씩 둘러시니
天筵孫손 雲雲錦錦을	뉘라셔 버혀내어
넋는듯 퍼티는듯	현스도 현스홀사

「星山別曲」³⁷⁾

<인원3>

山山中중의 冊冊曆曆넉업서	四四時時 시를 모르더니
눈아래 헤탄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仙間間 간이라

36) 鄭澈, 『松江歌辭』 上, 「星山別曲」.

37) 鄭澈, 『松江歌辭』 上, 「星山別曲」.

「星山別曲」³⁸⁾

정철은 <인용2>에서 息影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멀리선 無心한 구름이 오락가락 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비단 같은 창계가 흐르고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같이 정철도 구름을 햇빛을 가로막는 간신이나 소인배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그리고 냇물은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³⁹⁾ 하지만 <인용2>에서의 구름은 자연의 부분으로서의 구름이며, 창계 역시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용2> 부분은 「星山別曲」의 서두로써 현실 탈출의 의미가 詩想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성산은 현실과 철저히 단절된 곳이다. 유교적 질서가 부재하므로, 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김성원의 삶이자, 정철의 무의식이 동경하는 삶이다. 동시에 철저한 유학자를 추구하였던 페르조나의 부정이다.

성산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선계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책력이 없는 것이다. 정철은 성산의 모습을 ‘눈아래 헤틴景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선間간이라’로 표현하고 있다. 金善子は <인용2>와 <인용3>을 두고서 감각적인 표현으로 신선의 경지를 드러내었다고⁴⁰⁾ 평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김선자의 지적처럼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선계가 아니다. 정철의 무의식이 추구하였던 현실로부터 유리된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星山別曲」의 심상은 선망-갈등-자조로 흐른다. 序詞에서의 선망이 결사로 흐를수록 자조로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¹⁾ 李炫周는 結詞를 과객과 주인이 술과 음악에 도취되어 무아지경에 도달함으로써 세속에 대한 갈등을 억지로라도 해소해보려는 자기다짐이라고 지적하였다.⁴²⁾ 하지만 「星山別曲」에는 과객과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술과 음악에 도취되어 무아지경에 도달한 적도 없다. 무엇보다도 세속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 없다. 「星山別曲」의 감상이 어려운 것은 정철의 어느 작품보다 페르조나와 무의식의 갈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조는 비슷한 심상에서 그려진 성산의 모습이다.

<작품>

남극極극 老노人인星성이 息식影影亭亭에 비취어서
滄창海海 桑상田田이 슬꺾장 뒤늬드록
가디록 새비출내어 그물뉘를 모른다⁴³⁾

남극 노인성은 태평성대의 상징으로서 이 별이 빛나면 치안이 이루어지고, 병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극 노인성이 비추는 곳은 유교의 정치가 불필요하다. ‘修身齊家治國平天

38) 鄭澈, 『松江歌辭』上, 「星山別曲」.

39) 「思美人曲」의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續美人曲』의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시조 ‘이 몸 히러내어 등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0) 金善子, 「松江 鄭澈의 詩歌研究」, 圓光大 博士學位論文, 1993, 61면.

41) 줄고, 「星山別曲의 表現 特性 研究」, 『無等山圈 고시가 문학연구』, 훈출판, 2002, 265 ~287면.

42) 李炫周, 「松江歌辭의 形成과 變貌 樣相」,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114면.

43) 鄭澈, 『松江歌辭』下, 作品番號 33.

下'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다. 이 남극 노인성이 식영정에 비쳐서 창해 상전이 되도록 그 빛을 더해간다는 것이다. 창해 상전은 무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철의 페르조나가 설자리가 없다.

최태호는 이 시조에서 그려진 성산의 모습을 이상향으로 말하였다.⁴⁴⁾ 그러나 정철에 있어서 성산은 무위자연의 도교적 이상향이 아니다. 이 시조에서 그려진 식영정 일대의 자연과 생활은 페르조나가 가면을 벗어도 용납할 수 있었을 뿐이다. 정철이 페르조나를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빚어낸 것이 남극 노인성이고, 당시의 현실에 비취봤을 때 역설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조와 「星山別曲」의 詩想은 자기 변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은 정철에게 신선이 무위자연하는 이상향도 아니었으며, 유자가 때를 기다리는 귀거래처도 아니었다. 성산은 현실을 초탈하는 공간,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였다. 현실과의 단절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노이로제와의 단절이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철은 항상 성산을 동경하였으면서도, 현실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작품2>

잘 새는 느라들고 새 들은 도다온다
외나모 드리에 혼자 가는 더듬아
네 달이 언마나흐관디 먼복소리 들리느니⁴⁵⁾

<작품3>

물아래 그림재디니 드리우히 둥이간다
더중아 게잇거라 너가는디 무리보자
막대로 흰구름 무르치고 도라아니보고 가노매라⁴⁶⁾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밖의 사람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철저한 유교주의자였던 정철에게 불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정철 작품에 등장하는 중은 불교의 실천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세상과 단절된 존재일 뿐이다. 정철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다음 작품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4>

新新羅라 八 팔百百년년의 늑드록 무은탑탑을
千 천斤 근든 쇠뿔소리 티드록 울힐시고
들건너 寂寂寞막山山亭亭의 暮모景경도를 썬이라⁴⁷⁾

<작품5>

十里逃虛已喜登 逃虛의 십리 길 밭걸음 기쁘데

44) 崔台鎬, 앞의 책 176면 식영정 일대의 자연과 생활은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는 하나의 선계와 같은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45)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76.

46)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71.

47) 鄭澈, 『松江歌辭』 下, 作品番號 52.

知心況復故人逢 하물며 마음 아는 벗을 다시 만났구나
 溪頭煮酒收松子 시냇가 술방을 주워 술 데워 마시고
 醉入山樓已動鍾 취한 채 山樓에 드니 벌써 종소리 울리네
 「靈隱寺」⁴⁸⁾

정철은 ‘新羅 八百年의 늑득록 무은塔’이 울리고 있는 이유가 단지 ‘들건너 寂寞山亭의 暮景도 올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철에게 佛舍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도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며, 잠시 바쁜 발걸음을 쉬어 가는 장소이다. 세상 밖의 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중은 세상과 단절된 탈속의 인물이다. 정철은 이러한 중이 어디로 가는지 를 묻고 있다. 그리고 이 답을 「星山別曲」에서 찾고 있다.

<인용4>
 압어흘 그리어러 獨獨木 獨橋 교 빗겨논디
 막대멘 늘근중이 어너덜로 간닷말고
 山山翁翁의 이富 부貴 귀를 늑드려 현스마오
 「星山別曲」⁴⁹⁾

<작품2>와 <작품3>, 그리고 <인용4>는 동일한 시상이다. 세상을 탈속한 스님이 가는 곳이 독목교 건너 성산이라는 것을 정철은 「星山別曲」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다. 성산은 이와 같이 세상과 단절된 곳, 세상을 초월한 인물들이 찾는 곳이다. 여기에 대한 강한 동경을 ‘山山翁翁의 이富부貴귀를 늑드려 현스마오’로 표현하고 있다. 정철은 이러한 성산의 자연을 그려냈기에 이곳은 정철에게 귀거래처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성산은 정철을 잡아둘 수 없었다.

성산으로 표출된 정철의 자연은 세상과 단절된 곳, 현실 속의 정쟁이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노이로제에서 해방되는 공간인 것이다. 동시에 현실 참여의 강한 의지가 좌절되는 자기 부정의 공간이다. 정철은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도피와 동경을 그의 삶과 문학에서 끊임없이 갈구하였다. 이러한 갈등이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그의 작품세계를 구현하였기에 정철 문학은 주제와 구조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중성을 지닌 것이다.

IV. 結論

정철에 있어서의 자연관의 특징은 수기의 방편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유형적 자연과 현실 탈출의 공간이라는 개성적 자연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귀거래처로서의 자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귀하여 강호에 머물고 있을 때나, 치사 중에 문학을 통한 동경의 대상이었던 강호나 정철에게는 모두 현실과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적 모델이 적막산중의 성산이었다. 정철 문학에 드러난 모든 자연은 바로 성산의 굴절된 여러 모습이다.

정철에 있어서 자연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었다. 정철의 페르조나는 끊임

48) 鄭澈, 『松江集』 卷一, 續集

49) 鄭澈, 『松江歌辭』 上, 「星山別曲」

없이 권력의 중심부를 추구하였고, 무의식은 그러한 정철을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정철에게 歸去來處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철에게 歸去來는 일반 사대부의 歸去來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철의 歸去來는 정치적 패배였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노이로제였다. 그러한 정철이었기에 그의 문학 세계는 더욱 더 현실 지향으로 나타나거나, 현실의 탈출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어린 시절 정철이 경험하였던 가문의 피화가 노이로제가 되어 그의 삶 전체를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정철에게 있어 자연은 그의 무의식이 항상 동경하였던 이상향이자, 자기 부정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자연관이 그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면서 역동적이면서, 이중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참고 문헌

- 金善子, 「松江 鄭澈의 詩歌研究」, 圓光大 博士論文, 1993, 61면
- 金成基, 『남도의 시가』, 亦樂, 2002, 270~271면
- _____, 「松江의 自然觀」,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231~252면.
- 金周坤,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研究」, 『대구어문논총』 6, 1988.
- 金周漢, 「松江의 生涯」,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1~26면.
- 安 畚,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朝鮮大學校 博士論文, 2000, 155면.
- 李丙疇, 『松江·孤山 文學論』, 二友出版社, 1979, 15면
- 李炫周, 「松江歌辭의 形成과 變貌 樣相」,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114면
- 曹圭益, 「松江 鄭澈의 短歌」,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36면
- 崔圭穗, 「星山別曲의 作品構造的 特性과 自然觀의 問題」, 『이화어문논집』 12, 1992.
- 최상은, 「松江歌辭에 있어서의 自然과 現實」, 『모산학보』 4·5, 1993.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77, 25~33면
-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92면
- 프로이드, 서석연 역, 『정신분석학 입문』, 범우사, 1990, 284~285면
- 줄 고, 「松江鄭澈詩文學研究」, 朝鮮大學校 博士論文, 2003, 74~199면.
- _____, 「鄭澈 時調의 文學的 特性 研究」, 『古詩歌研究』 제2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3, 61~88면
- _____, 「星山別曲의 表現 特性 研究」, 『無等山圈 고시가 문학연구』, 훈출판, 2002, 265~287면.
- _____, 「鄭澈 研究」, 『人文科學研究』 21집, 朝鮮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99, 91~115면.

<Abstract>

A Study on Idea for Nature Reflected Jeong Cheol's literature

Kim, Jin-wook

An idea for nature of Jeong cheol reflected in his works, which is divided into that for ethical nature to be used for the method to improve his mind and that for nature of ease to escape into outer world and reveals that nature of place wait for an opportunity, the most general one in Chosun dynasty, is rarely expressed in Jeong cheol's literature. Like this, this paper presents that two utmost literary worlds coexist in Jeong cheol's literature and insist that this keeps the tenseness of Jeong cheol's literature.

Through this study I see that his larges special character is that the duality of deviation and harmonization consistently operated in all his works, especially Gasa 「Gwandongbyeolgok」, 「Seonssanbyeolgok」 and Shijo and life force is put in all works by his literary creative ability by breaking a general form into a unfamiliar thing familiar changing devices. Through it this study make the destruction and re-creation of words and form clear.

this paper analyzes how the double self to concentrate and to transcend in the two worlds overcome the conflict and configurate it. Through this, this paper manifests dualism of Jeong cheol's literature is his literary individuality

Key words : Jeong cheol, Seonssanbyeolgok, idea for nature, Gwandong- byeolgok